10.18219/ddmh..107.201909.29

반전하는 자의 고투*
— 고바야시 마사루의 한국전쟁**

金艾琳***

Ⅰ. 전쟁, 반전, 반전 주체
Ⅱ. 반전의 윤리
Ⅲ. 반전의 윤리를 응시하는 윤리
Ⅳ. 반전 운동의 역사와 고바야시 마사루

• 국문초록

이 글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斷層地帶』와 「가교」에 나타난 반전 윤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1950년대 초반 일본의 한국전쟁 반대운동이 지닌 역학과 의미를 분석한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조선’을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되는 ‘사건’으로 회부하면서 한국전쟁에 협조하는 일본을 향해 통렬한 비판과 성찰의 육성을 들려주었다. 그는 일본공산당 당원으로서 1952년 화염병 사건에 참여했다. 두 텍스트는 이 시절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윤리적 지향은 반전 운동에 참여했던 당원들을 향해 있는데, 이들의 실천과 신념은 일본공산당의 강령 변화와 더불어 온전히 의미화되지 못한 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잊혀졌다. 이 시기를 다룬 고바야시 마사루의 두 편의 소설은 망각된 행동대원들을 기리는 시도이자 당시 일본의 대항세력이 조선에 대해 가졌던 책임을 성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작품 사이에는 인식론적 간극이 있다. 이 글은 『斷層地帶』를 진정성의 서사로 파악하고 「가교」를 자기-중심적인 진정성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57496).
** 이 논문은 2019년 5월 10일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주최 학술대회 〈비상의 시대, 동원의 정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서사를 넘어서는 서사로 독해했다. 『斷層地帶』에서 반전 윤리가 뚜렷하게 표명되고 있다면 「가교」는 자기-대상화를 통해 반전윤리를 응시하는 윤리라는 메타윤리를 생성하고 있다.

주제어 : 고바야시 마사루, 한국전쟁, 반전운동, 화염병 사건, 반전윤리, 반전윤리를 응시하는 윤리

Ⅰ. 전쟁, 반전, 반전 주체

냉전기 내전의 가장 큰 특성은 내부적 충돌에 외부 세력이 개입한다는 데 있다.[1)]한국전쟁은 이런 경위와 의미에서 전형적인 내전이자-국제전인 열전이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은 미소라는 거대국을 두 축으로 일어났지만 이에 연동하여 들어오는 하위 지역 세력도 있었다. 미소 간에 직접 교전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쟁의 지리적 범위도 한반도에 국한된 제한전(limited war)이었지만,[2)] 격전지 한반도를 향한 외부로부터의 전력 이동은 급박하고 긴박하게 일어났다. 중국은 "항미원조라는 정의의 전쟁"을 위해 참전했고 이 투쟁을 "중국인민의 고도의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의 결정"[3)]으로 자리매김했다. 주지하듯이, 지역 세력의 움직임이 중국에 그친 것은 아니다. 일본의 연루는 한국전쟁의 '동아시아적' 맥락을 파악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다.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적 갱생에 한국전쟁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쟁 협조의 구체적인 면면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일본의 협조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누설과 은폐 사이에 걸쳐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발발 초기, 일본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목하 조선을 둘러싼 사태와 일본의 관계는 전혀 별개"라는 뚜렷한 '無關'의 표명은 "제3자의 입장"이라는 말로 압축되었다.[4)]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일본은 "제3자"가 아닌

---

1) 김학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 『아세아연구』 14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이 논문은 한국전쟁이 갖는 "국가간 전쟁 형태로 진행된 내전"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한다.

2) 마상윤, 「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 『세계정치』 22,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15, 90면.

3) 김지훈, 「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사림』 64, 수선사학회, 2018, 315면, 321면 재인용(원문은 前華北人民政府教育部 教科書編審委員會, 『高級小學歷史課本』 第四册, 人民教育出版社, 1952, 47면; 『初級中學歷史教學大綱(草案)』(1956), 課程教材研究所, 『20世紀中小學課程標準・教學大綱匯編』 歷史卷, 北京, 人民教育出版社, 2001, 152면).

4) 이에 관해서는 大沼久夫, 「朝鮮戰爭への日本の協力」, 大沼久夫 編, 『朝鮮戰爭と日本』, 新幹社, 2006, 80면. 의용병 응모에 대해서도 불허 방침이 내려졌다. 「일본인의 의용병 응모를 불허한다」는 제하에 실린 요미우리 신문 기사는 재일한국민의 의용군 모집에 일본인이 응모하는 수가 적지 않으나 일본인의 한국의용병 응모는 밀출국이므로 허가될 수 없다는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전했다(80면).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과는 달리 전쟁 협력과 참전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한 A급 전범 용의자는 미군 지휘 하에 반공투쟁에 참가하여 일본의 반공주의를 보호, 강화하자는 논리 하에 전쟁 참가 허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당시 현직 중원의원의 경우 일본인 대원으로 구성한 의용방위군을 조직하여 국제연맹에 가담하여 대공산주의 투쟁에 참여하자고 주장했다.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大沼久夫에 따르면 일본의 협력은 두 트랙으로 나뉜다. 강제적인 협력/자주적인(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군사적인 협력/비군사적인 협력이 그것이다. 舊철도성 관부연락선 선박이나 舊국철을 이용한 병사(국연군) 수송, 미해군 대여 LST에 의한 인원 및 물자 운송과 보급 등의 후방 지원 활동은 실질적으로 일체화되어 있었다. 군사적 협력으로는 구 일본 해군의 소해정이 일본특별소해대로 기뢰 침해 활동에 참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순직자와 부상자도 나왔다. 그러나 당시 언론에서 이러한 사실은 거의 보도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한 편, 자주적인 협력에는 의용군 지원이나 국연군 부상병에 대한 일본 적십자 의료 활동, 현혈 및 의연금 기부 등이 해당된다.[5] 이렇게 공표된 바 없이 다각적으로 진행된 군사적 개입은 일본을 사실상의 "넓은 의미의 참전국"[6]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중국과는 다른 유형의 참전 "넓은 의미의 참전"은 기지국가로서의 '임무'를 '다한' 행태이기도 하다.[7] 반격을 위한 출격기지이자 보급기지, 휴양기지, 훈련기지로 중요하게 기능한 일본[8]은 미국의 전쟁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매개-터였다. 냉전기 국제질서의 계서제는 전쟁의 허여, 용인, 협조 등과 같은 관계 내로 진영 국가들을 호출하는 바, 기지국가 일본의 작동은 말 그대로 國際戰化의 권역국가 동원 체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글은 한국전쟁기 지역 냉전 세력의 한반도행 구도에서 일본의 전쟁 조력 맥락을 조망하면서 이 거시적 동원 체제에서 발생한 균열의 장소에 접근해보려 한다. 균열의 장소란 동원의 메커니즘에 그것이 원치 않는 '잡음'이 일어나는, 소음과 소란의 현장을 뜻한다. 전쟁에 동원되고 협조하는 국가에 대한 적대는 '반전'의 이념과 운동으로 출현했다. 이 시기 반전의 논리와 실천은 입체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우선 '국가' 자체가 동원 구조 한가운데 자명하게 위치한 상황에서 '반전'의 소음과 소란이 어떤 효과와 영향을 발휘했는지는 전쟁 정책의 실제적 전환이나 변모라는 실정적 차원에

관련해서는 83~84면 참고.

5) 大沼久夫, 앞의 2006 글, 76~77면 참고.

6) 「일본 입닫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전쟁 참전국」, 『한겨레』, 2010.6.2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427991.html#csidxd9bff568c836fdc9919d47fc133a040.

7) 기지국가 일본에 대해서는 남기정, 「동아시아 냉전체제하 냉전국가의 탄생과 변형」, 『세계정치』 26,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05 참조할 것.

8) 남기정, 「일본의 베트남전쟁」, 『사회와역사』 105, 한국사회사학회, 2015, 76~77면.

서 가늠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자리에서 보면 '잡음'일 터이나, 대항 정치성의 생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사적, 비판적 울림의 의미를 달리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반전이 반제, 반미, 민주화, 평화와 같은 정치적 대의에의 소신과 소명만으로 깨끗하게 환원될 수 있는 사태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반전의 장에는 당연하게도 점령, 강화, 독립의 과정을 밟는 와중의 일본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기본틀이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었고, 반전을 주도한 집합적 주체의 전략과 전술, 분파와 권력의 역학도 엄존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집합적 주체라는 것도 하나로 균질화된 게 아니었기에 이념 분할뿐 아니라 에스닉 분할이라는 경계성 길항 또한 실재하고 있었다. 입체적 파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전쟁협력 국가와 전쟁반대 주체들이 부딪치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풍경 속에 고바야시 마사루가 있다. 그는 '조선'을 회피할 수도 없고 회피해서도 안되는 '사건'으로 회부하면서 전후 일본을 향해 통렬한 비판과 성찰의 육성을 들려준 작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이래 고바야시 마사루는 어떠했을까. 그는 전장 한반도를 옆에 두고 전쟁을 지원하는 일본-국가에 대항했다. 하지만 이뿐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대항실천의 주요 환경이었던 일본 공산당과, 소속과 결별이라는 관계를 맺었다. 더불어, 나고 살다 떠난 자로서 조선이라는 시공간을 마음에서 놓지 않은 채 줄곧 지니고 있었다. 적어도 이 세 정체성과 수행성의 중첩 속에서 한국전쟁기의 일본에 대한 중요한 문학적 기록이 나왔다. 한국전쟁과의 연관 속에서 고바야시 마사루를 정위할 때, 그의 천착의 핵심은 '동원을 저지하(려)는 자'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자신이 이 시절을 '동원을 저지하(려)는 자'로 살았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가 소설적 형상화를 통해 동원을 저지하(려)는 자의 존재성을 치열하게 탐색했음을 환기해야 하겠다. 한국전쟁 및 전쟁반대 운동을 둘러싼 고바야시 마사루의 인식론적 궤도를 검토하기 위해 이 글은 한국전쟁 반대운동의 현장을 형상화한 1960년 작 「가교」를 중심에 놓고 읽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관계적으로 독해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장편 『斷層地代』(1958)와 유관 에세이를 함께 배치해 살펴볼 것이다. 『斷層地代』와 「가교」는 1950년대 초반 자신의 정치적 기투의 체험을 주요한 자원으로 삼고 있다. 두 텍스트는 한국전쟁기의 일본의 상황, 대항주체가 자리한 환경 그리고 이 주체의 내면을 압축하면서, 바다 건너 저 편에 전장이 타오르는 지역(region)의 역사-정치적 무대에서 과연 무엇을

증언하고 정시해야 하는지 묻는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바야시 마사루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보자.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과 식민자 2세로서의 자기의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있다.[9] 식민지 조선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고바야시 마사루를 논할 때 필수적으로 고구해야 하는 의미론적 단위라는 점에서, 관련 논문들은 그의 세계에 진입하는 데 기본적인 도움을 준다. 한 편 이 글의 문제의식과 가까이 맞닿은 영역으로, 한국전쟁(기)를 다룬 작품에 대한 연구가 있다. 먼저 무장투쟁기의 당과 청년 당원들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묘사한 『斷層地帶』에 대한 고찰이 시사적이다. 『斷層地帶』는 고바야시 마사루가 남긴 유일한 장편이다.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기의 일본공산당 내부 정황과 당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소설에 관한 연구는 『斷層地帶』가 지금까지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음을 언급하면서, 텍스트에 밀착하여 작가의식을 부조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반대투쟁에 참여한 주인공의 내면에 주목하여 “조선에 대한 부채” 의식이 갖는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10] 더불어 개작 판본과의 세밀한 비교를 통해 다시쓰기의 의도와 효과를 읽어낸다. 『斷層地帶』의 초판 발행은 1958년이고 개작본 출간은 8년 후인 1966년으로, 이 논문은 고바야시 마사루가 몇몇 내용의 삭제와 정돈을 통해 전체적으로 1952년의 상황을 부각하는 쪽으로 개작했음을 밝히고 있다.[11]

한편, ‘한국전쟁(기)과 고바야시 마사루’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존의 논고에서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을 새롭게 조명한 성과도 있다. 이들은 해석의 장에 재일조선인이라는 슬라이드를 강하게 끼워 넣어, 조선(인)과의 관계맺음이라는 그의 가장 뜨거운 고민을 다시 한번 탐색한다. 이 과제는 반전투쟁 현장의 재일조선인을 그린 「가교」를 놓칠 수 없는데, 분석자의 관심이 동일하게 “연대”에 맞춰져 있다

9) 하라 유스케, 「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崔圭夏」, 『사이』 1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 신승모, 「식민자 2세의 문학과 “조선”」, 『일본학』 37,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3.

10) 井上幸子, 「1952年と戰後日本の斷層-小林勝の『斷層地帶』に見える戰後認識」, 『일본근대학연구』 55,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그 외 1952년의 첫소설 「ある朝鮮人の話」와 『斷層地帶』를 대상으로 고바야시 마사루의 전후 일본 비판을 고찰하는 논문으로 최범순, 「전후 일본의 기억과 망각」, 『일본어문학』 78, 한국일본어문학회, 2018.

11) 井上幸子, 「小林勝の『斷層地帶』のテキストの變化」, 『일본어문학』 82, 한국일본어문학회, 2018.

해도 상반되는 해석이 도출되었다. 즉 인물들의 상황을 “불가능한 동일시”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민제적 연대의 감각”과 “정념”의 순간을 보려 한 시도[12]도 있지만, 반대로 조선(인)-일본(인)사이의 (그 무엇의) ‘공유’란 일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기반한 섣부른 “연대의 상상” 역시 깨져야 할 환상이라는 전언을 들으려는 시도도 나온 것이다.[13]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952년 무렵으로 걸어 들어오는 고바야시 마사루의 행로를 좇을 것이다. ‘1952년 무렵으로 걸어 들어온다’는 표현은「가교」가 1960년에 쓰여진 1952년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시간 감수성을 발휘하는 이유는 첫째 1950년대 초반을 실제로 ‘동원을 저지하(려)는 자’로 살았던, 강한 당사자성을 지닌 고바야시 마사루의 실존을 텍스트 뒤로 숨기지 않기 위해서다.『斷層地帶』도 그렇지만「가교」역시 텍스트 구성자의 삶을 참조할 때 더 두터워질 것이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경험치에 관해서는 그간 많이 이야기되었지만 그가 구성한 반전운동의 자취와 구성 당시의 인식론적 정황은 온전히 규명되지 못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1960년이라면 일본, 일본공산당, 그리고 고바야시 마사루 모두 이미 적지 않은 변화와 부침을 겪으며 50년대 초반의 체험권을 통과해 나온 시점이다. 따라서「가교」의 창작을 1960년에 1952년을 들르는 행위로 이해한다면, 그것이 회고든 현재화든 그 둘 다이든 간에, 텍스트를 바로 1952년으로 치환하여 한 층으로 ‘납작’하게 다룰 때는 보이지 않는 의미 공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로 가공되지 않은 1960년 전후의 육성 노트를 참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같은 관점과 방법론은 궁극적으로 ‘반전하는 자의 고투’를 파악하고 그 고투가 어떤 윤리를 구축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쟁의 시대엔 혹은 전쟁 개입이 추동되는 시대엔 반전이 윤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일반적으로 틀리지 않으며, 전후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것이 다일까? 고바

---

12) 장세진,「트랜스내셔널리즘, (불)가능 그리고 재일조선인이라는 예외상태」,『동방학지』15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이 논문의 초점은 고바야시 마사루(혹은 그의 작품)라기 보다는 재일조선인과 그들이 남긴 다양한 문헌들이나「가교」를 읽는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13) 오태영,「식민(지)의 기억과 전후 연대의 상상력-고바야시 마사루의『쪽발이』를 중심으로」,『인문과학』114,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8. 이 논문은 기억이 연대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망각하지 않으려는 의지만이 아니라 기억의 자기중심성과 구성적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자기환멸의 윤리”라 명명한다. 이 윤리가「쪽발이」의 인물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야시 마사루는 반전의 윤리를 구축하면서 이 물음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간다.

Ⅱ. 반전의 윤리

레비나스의『전체성과 무한』은 전쟁 비판으로 시작된다. 레비나스의 사유가 주로 윤리학의 영역에서 조명받아 왔기에,『전체성과 무한』을 여는 전쟁론은 다소간의 언설적 이질성과 의외성에 대한 강조를 동반하며 독해되곤 한다. 책 서문에 집중되어 있는 전쟁 비판은 그의 이론에서 윤리-정치 연관 가능성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레비나스가 '정치'에 결코 무관하거나 무심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데 유효한 근거가 되고 있다. 서문에 특화된 상세한 읽기를 통해 레비나스의 정치철학을 조명하는 시도[14]도 이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전쟁은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을까. 그가 포착한 전쟁이라는 사태의 핵심은 "도덕의 중지"에 있다.

> 전쟁 상태는 도덕을 중지시킨다. 전쟁 상태는 영구적 제도와 의무에서 그 영원성을 벗겨내고 그렇게 하여 임시적인 것을 통해 무조건적 명령을 파기해 버린다. 전쟁 상태는 우선 인간들의 행위에 그 그림자를 던진다. 전쟁은 도덕이 겪는 시련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자리잡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쟁은 도덕을 가소로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전쟁을 예측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 승리하는 기술인 정치는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이성의 실행인 것처럼 행세한다. 철학이 어리석음에 맞서듯, 정치는 도덕에 맞선다."[15]

전쟁이 불러일으키는 도덕의 중지란 "피흘리게 하거나 죽이는" 폭력이 아니라 "인격체들의 연속성을 중단시키는" 폭력을 통해 일어난다. 대규모의 군사적 사건인 전쟁은 개별 주체의 자리에서, 도덕성의 말소라는 존재론적 사건으로 미시 연발한다.

---

14) 강영안,「전쟁과 평화-레비나스의 정치철학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평화」,『일본사상』1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0; 박예은,「레비나스의 타자윤리와 제3자의 정치철학」,『인문논총』73-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6; 문성원,「윤리와 종말론」,『시대와 철학』24-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문성원,「정치와 윤리」,『시대와 철학』26-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15) 에마뉘엘 레비나스, 김도형 외 역,『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9, 7면.

이 轉化를 규명하기 위해 레비나스는 전쟁이 강요하고 유도하는 '전체성'을 소환한다. 전쟁은 "누구도 거리를 둘 수 없는 질서"를 만들어 모든 존재를 "모면할 수 없는 객관적 질서"로 흡수한다. 이로써 개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명령하는 힘들의 담지자로 환원"되고 "자신들의 의미"를 "전체성으로부터 빌려오"며 존재한다. "외재성을 보여주지 않으며 타자로서의 타자를 보여주지 않"[16]는, '바깥'이라는 여지를 말소하는 상황에 주체는 빠져드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쟁은 외재성을 불허하는 동원 명령[17]이다.

전쟁이 전쟁에 동원될 것을 재촉하면서 벌어질 때 혹은 전쟁에 동원되는 것에 무감해질 것을 종용하면서 일어날 때, 이를 거부하는 외재성의 에너지 역시 생성된다. 동원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의지, 동원에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는 의지로서의 반전은 이 이반하는 에너지의 뚜렷한 활성태이다. 레비나스에 기대어 반전의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두 개의 충돌을 생각해야 할 듯하다. 먼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영향권 내에서 벌어지는 또하나의 충돌이 있다. 전체성(전체화)과 주체 사이의 충돌이 그것이다. 이 충돌에서 전체성이 승리한다면 주체는 전체성에 점령당하여 전체성의 담지자, 대리자로 종속되고 만다. 이러한 충돌의 구도를 종합하면 결국 반전이란, 전쟁-충돌을 반대하는 행위인 동시에 전체성(전체화)과는 충돌하는 행위가 된다. 주체의 사안으로서의 반전 윤리의 핵심은 물론 후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틀을 역사의 장으로 가져와 보자. 반전 의지를 군사적으로 표명하고 무력으로 실행할 것을 선택한 1950년대 초반 일본의 반전 주체는 실력행사와 물리적 공격을 기획, 실행했으므로, 전쟁 반대를 위해 전투를 감행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활동가로서 또 문학가로서 이 반전의 윤리를 내화하고 실천했다. 전기적 생애와 작품을 함께 살피면서 그가 모색한 반전의 윤리를 되짚어 보자. 조선에서의 출생과 성장이 그의 삶과 의식 전반을 관장한 근원적인 경험이었다는 점에 긴 설명을 더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식민지의 식민자 2세'라는 존재론적 곤혹과 고통은 제국 일본과 전후 일본을 향한 독보적인 비판적 성찰로 연장되었다. 반전의 윤리를 벼리는 데 있어서도 이 경험은 마찬가지로 중요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16) 에마뉘엘 레비나스, 앞의 2019 책, 8면.
17) 강영안, 앞의 2010 글, 43면.

그의 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몇몇 지점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조선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일본으로 귀환한 것은 18세 때인 1945년이다. 3년 뒤인 1948년 그는 일본공산당에 입당한다. 그리고 1950년이 온다. 공산당 당내 투쟁이 일어난 해로 이 때 고바야시 마사루는 '주류파'에 속해 분파투쟁을 치른다. 그리고 대학으로 번진 레드퍼지 반대 투쟁을 지도하다가 정학처분을 당하고 1951년에 중퇴한다. 1952년은 주목을 요하는 시기로 조선전쟁 · 파괴활동방지법 반대 데모에 참가했다가 이른 바 화염병 사건의 현행범으로 도쿄구치소에 구류된 해다. 1953년 1월 보석으로 나온 후 도쿄 스기나미 진료소에 근무하면서 당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지속한다. 1954년에는 1952년 사건의 연속으로 제1심 판결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는다. 1959년 초 보석 수속 미비로 갑작스레 다시 수감되었다가 곧 석방되지만 같은 해 7월 최고재판소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또 수감된다. 이후 몇 번의 이송을 거치며 수감생활을 이어가다가 1960년 1월에 가석방된다. 그리고 1965년, 그는 오랜 소속처였던 당과 멀어진다. 당과의 결별과 관련하여 그는 마지막까지 제명처분으로 떠나지도 않고 離黨 신고서도 절대 내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고바야시 마사루의 반전 윤리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화염병 사건에 참여한 1952년을 주목해야 할 터인데, 이에 앞서 당시 일본공산당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가 전장이 되어버린 1950년대 초반은 일본 공산당 내부적으로 노선, 전략, 조직 등 여러 면에서 중대한 방향전환과 격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전환은 1949년까지 유지해온 '점령하 평화혁명' 방침이 1950년 초 국제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본격화된다.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이든, 사회주의 혁명의 달성이든 점령군 철수와 주권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때, 점령하 평화혁명 노선이란 판단오류와 자기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1950년 1월 코민포름 기관지 『영구평화와 인민 민주주의를 위하여』(『永久平和と人民民主主義のために』)에 게재된 「일본의 정세에 대하여」(「日本の情勢について」)는 지금까지 당이 견지해 온 점령하 평화혁명론에 큰 파열을 가져왔다. 더불어 당 지도부와 전 당원을 상극과 상호 타격이라는 심대한 혼돈과 내홍으로 몰아갔다.

---

18) 『小林勝作品集』 5, 白川書院, 1976, 398~406면의 작가연보와 고바야시 마사루, 이원희 역, 『쪽발이』, 소화, 2007, 315~317면 참고.

무력혁명 슬로건이 제기된 것은 1950년 10월로,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1951년부터 주류파는 실력행사, 군사방침, 무장투쟁에 입각하여 기본 방침, 전술, 조직, 규약 등을 재편한다. 이 과정은 극렬한 분파투쟁과 가혹한 敵化의 소용돌이를 동반했다. 당시의 당내 투쟁은 “패전 후 사상적으로 눈뜨고 이상과 정열에 불타서 당 활동에 참가한 많은 젊고 순수한 당원들, 착하고 성실한 노동자 당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이들 중 다수를 실의와 절망 속으로 밀어넣”은, “많든 적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희생을 헛되게 소모”케 한 “진흙탕 싸움”이었다는 평가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19] 1952년에는, 특히 5월부터 7월까지 화염병 투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 2개월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주권 회복(4.28)을 시작으로 하고 파괴활동방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끝으로 하는 시기다. 5~6월에 걸쳐 화염병 투쟁이 일시적으로 표면화되었고, 군사위원회나 중핵 자위대 지도에 기초한 무력행동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5월 30일에는 신주쿠역 사건, 이타바시의 파출소 습격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2주년이 되는 6월 25일에 오사카 스이타에서 충돌사건이 발생한다. 같은 날 오사카 히라카다 사건, 히메지 사건, 신주쿠 역 화염병 투척 사건도 함께 일어났다. 7월 7일 나고야 오오스에서도 경찰관과의 대규모 충돌사태가 벌어져, 다수의 사상자와 검거자가 생겨났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화염병 투쟁이 전개되었다.[20] 이 가운데 오사카 스이타 사건, 나고야 오오스 사건은 도쿄 메이데이 사건(5.1)과 더불어 3대 소요사건에 들어간다.[21]

이 시기의 화염병 투쟁은 일부 청년, 학생, 조선인, 노동자가 참여한 정도의 무장투쟁에 그쳤을 뿐 진정한 대중적 군사행동이 되지는 못했고 공권력과의 충돌도 대중적 항의나 투쟁을 확대시키지 못한 채 운동 세력의 고립을 자초하고 만, 극좌 모험주의적 시도였다고 비판받는다.[22] 이러한 비판은 해당 국면을 벗어나 사후적으로도 이루어

---

19) 이 시기 분파투쟁의 전개와 경위에 관해서는 고야마 히로타케, 최종길 역, 『전후 일본의 공산당사』, 어문학사, 2012, 특히 1~2장 참조. 인용은 181면.

20) 사건 목록은 고야마 히로타케, 앞의 2012 책, 202면 및 328~320면의 전후 일본공산당 당사 연표 참고.

21) 西村秀樹, 『大阪で闘った朝鮮戰爭: 吹田枚方事件の青春群像』, 岩波書店, 2004, 10면.

22) 西村秀樹, 앞의 2004 책, 202면. 빈번했던 화염병 투쟁이 잦아들게 된 상황은 7월 4일, 『항구적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에 도쿠다 서기장이 파업과 데모에 집중하고 선거투쟁에는 소홀한 경향을 비판하는 논문 「일본공산당 창립 30주년에 즈음하여」를 발표하면서 열렸다.

졌지만, 1952년 무렵에도 피할 수 없었다. 폭력 사용과 과도한 군사 행동에 대한 조절과 제어의 요구가 투쟁의 전략 전술을 최적화한다는 차원에서 당내에서도 일었기 때문이다. 합법, 비합법 투쟁의 구분과 양자의 기술적 사용을 고하는 지침에 따라, 7월을 경계로 화염병 투쟁은 현저하게 잦아든다. 일본공산당이 1950년을 거치면서 공식화한 무력투쟁 강령을 극좌모험주의로 절하하면서 평화혁명 노선으로 재귀한 것은 1955년(6전협)이다.

고바야시 마사루가 어떤 의식과 마음으로 반전을 자신의 내발적 요구로 인지하고 중대한 정치적 임무로 받아들였는지는 『斷層地帶』의 주인공 기타하라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斷層地帶』는 식민자 2세 주인공의 투쟁활동, 화염병 사건과 수감, 재판, 당내부 상황 등을 서사화한 사실 기록적 성격이 강한 소설로, 그의 체험이 강하게 투영된 것으로 평가된다.[23] 기타하라는 종종 조선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전장이 되어버린 조선을 생각한다. 그리고 패전 후 아메리카 공군에 접수되고, 조선전쟁 발발 이래로는 연일 한반도로 이동하는 전투기와 폭격기의 기지가 되어버린 舊 육군항공사관학교 터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본다.[24] 시종일관, 기타하라의 내면은 조선을 향한 안타까움과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한 극장에서 그는 뉴스에 비친 전시의 조선을 보게 된다.

> 뉴스에는 분명 기타하라가 살고 교육받았던 조선의 민둥산, 포플라나무, 넓은 전원,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나오고 있었다. 일순간 로케트탄과 네이팜 포탄이 작열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초가집이 순식간에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기타하라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고향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감동과 그것이 무참하게 파괴되는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시에 느꼈다.[25]

애정과 고통의 대상인 조선을 '위해' 기타하라는 행동대에 참여한다. 그가 "이번 행동대에 참가하는 것은 당의 방침 때문만은 아니다. 조선전쟁에 實力으로 반대한다는 데 찬성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내게는 나 자신만이 가진 조선이 있"기에 "그 조선을 위해 싸울 것을 결심한 것"[26]이다. 이를 위해 기타하라는 "적의 무장상태를

23) 최범순, 앞의 2018 글, 87~88면 참고.
24) 『斷層地帶』, 『小林勝作品集』 2, 白川書院, 1975, 31면.
25) 『斷層地帶』, 『小林勝作品集』 2, 白川書院, 1975, 19면.

조사하고 무기를 스스로의 손으로 준비하"며 모든 것을 "목표를 향해" "통일"시켜야 한다는 당의 명령에 충실히 임한다. 그는 "6월 하순 도내 각지에서 국제평화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즉 조선전쟁 2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전쟁 반대와 파괴활동방지법안 반대 집회를 연다. 당연히 적 권력의 탄압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 이 부대는 저 공작을 방해하러 오는 적으로부터 당과 대중을 實力을 갖고 방위해야 한다는 것과 예상되는 적의 탄압과 싸워 타격을 주고 대중을 지키고 대중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27]는 당의 방침과 계획에 따라 자신을 던진다.

기타하라를 통해 제시되는 반전 윤리의 結晶은 "조선에 대한 부채"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환언된다. 기타하라는 실전에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게 될지 모르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당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행동을 걸기에 충분한 이유를 스스로 안에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일본인으로서 조선에 대해 갖는 부채"라고 명시한다. 이렇게 "조선에 대해 갖는 부채"를 말하는 기타하라에게 행동대 참여는 "이 부채를 지워나가기 위해 행하는 하나의 작은 그러나 다분히 위험한 행동"[28]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는 자기가 속한 "행동대의 최초의 행동이 조선에서의 전쟁에 반대하여 모인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게 "단지 우연만은 아니"라고 확신하다. 『斷層地帶』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타하라의 반전 윤리는 흔들림 없이 공고하다. '양심'과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한 주체의 반전 윤리 서사는 다음과 같은 의미사슬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즉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 '구제국 일본은 조선에 잘못이 있다' - '따라서 조선에 근원적인 부채가 있다' - '이제 기지국가 일본이 다시 잘못하고, 잘못되고 있다' - '이중의 부채를 지워야 한다, 혹은 지우고 싶다' - '그래서 모든 것을 무릅쓰고 반전한다'. 이것이 기타하라 곧 고바야시 마사루가 생성한 반전 윤리의 생성 줄기다. 저 편의 전쟁에 응답하기 그리고 이 편의 전쟁 부역에 대응하기. 『斷層地帶』는 이 시도가 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절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자 이 시절에 나름의 '진심'을 다했던 한 개인의 사적인 술회라 할 수 있다.

26) 『斷層地帶』, 『小林勝作品集』 2, 白川書院, 1975, 40면.
27) 『斷層地帶』, 『小林勝作品集』 2, 白川書院, 1975, 41면.
28) 『斷層地帶』, 『小林勝作品集』 2, 白川書院, 1975, 47면.

Ⅲ. 반전의 윤리를 응시하는 윤리

지금까지 『斷層地帶』를 중심으로 반전 윤리의 의미와 의의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고바야시 마사루에게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또 하나의 윤리가 있는 게 아닐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반전의 윤리와 같은 값을 갖는 또 하나의 윤리라기보다는 이 윤리를 초과하는 메타 윤리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즉, 반전의 윤리를 '다시-보는' 힘에서 배어나오는 윤리로, 나는 이를 '반전의 윤리를 응시하는 윤리'라 명명할 것이다. 반전의 윤리를 다시-보는 일 역시 1952년이라는 반전했던 시기, 반전했던 현장을 다시 들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뛰어난 記述이 바로 「가교」이다. 『斷層地帶』도 개작까지 포함하면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걸쳐 두 번이나 되짚어간 1952년이지만, 「가교」와 『斷層地帶』는 서로 다른 질감을 갖는다. 두 텍스트의 간극은 『斷層地帶』의 반전 인식이 「가교」의 그것에 의해 대상화되고 거리화되면서 생겨난다. 후자는 전자가 미처 포착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 것을 드러내고 누설한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가교」는 『斷層地帶』보다 깊고 복잡한 시선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가교」에 깃들어 있는 그 깊이와 복잡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斷層地帶』에 대해 「가교」가 드러내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 텍스트에서 일본인 반전 주체의 1952년이 단순히 '진정성'의 서사로 도색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斷層地帶』라는 긴 소설적 기록이 역설하는 것은 기타하라로 상징되는 일본(인) 반전 주체의 진정성이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경으로 투쟁에 임했는지가 우회없이 직설적으로 전달된다. 이후에 언급하겠지만 기타하라로 상징되는 반전 주체는 당시 '반전'을 기획한 집합적 주체로서의 '당'과도 다르고 당을 주도한 상부의 인사들과도 다르다. 실상 반전 주체는 단일하게 집합화하기엔 이미 '여럿'이었고 또 여러 '층'이었다. 이 가운데 기타하라는 그 누구보다도 공적 명분과 사적 역사에 충실하게 자기 윤리를 구축하여 반전에 뛰어든 '순정적' 주체를 지시하고 대표할 것이다. 어쨌든 그를 통해 『斷層地帶』는 (일본인의) 반전 윤리의 진정성을 옹호하고 기억하며 기리는 서사가 되었다. 하지만 「가교」는 이처럼 (일본인) 반전 주체의 진정성을 호소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오히려 『斷層地帶』의 반전 윤리의 풍경에 잡히지 않았던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가교」를 발표할 즈음의 고바야시

마사루의 내면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자. 이 시기에 그가 쓴 두 편의 에세이가 1952년 사건을 둘러싼 그의 관심이 무엇을 향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교」를 발표한 1960년을 전후하여, 고바야시 마사루는 「事實と責任の所在-火焔瓶事件の頃」(「사실과 책임의 소재-화염병사건 무렵」, 1959)과 「獨居房ノート」(「독거방 노트」, 1960)를 쓴다. 두 편 모두 1952년 화염병 사건 혹은 화염병 사건으로 제유되는 반전운동이 이를 실행한 주체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었는지 냉철하게 묻고 있다. 이미 말했듯 『斷層地帶』는 개작을 거치면서 1958년부터 1966년 사이에 걸쳐 있고 「가교」는 1960년에 발표했으니 이 텍스트들에 위의 두 에세이까지 합쳐 전체적인 구도를 일별한다면 시간적 선후에 따른 의식의 변화보다는 복수의 텍스트를 가로지르며 지속되거나 변주되어 온, 내구력을 지닌 어떤 지향성을 찾는 게 타당하다. 이 작업에, 에세이들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첫째, 그가 사건 당시의 당지도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면서 이 사건과 이 시절이 전체적으로 묵음화되어 온 상황을 아프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이다. 「事實と責任の所在」에서 그는 “화염병 사건”을 “1950년 후반기부터 1952년에 이르는 사이에 전개된 일본공산당의 ‘군사방침’”이라 요약하면서 “화염병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필요치 않지만 이것이 어떤 이론과 조직을 거쳐 행동화되었는지, 궁극적으로 말해, 이 문제에 관한 진정한 정치책임은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 자신이 이 사건에 관계하고 있었다 해도 아는 바가 한정적이고 체험의 범위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에 전모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바야시 마사루가 당시의 상황을 되돌이켜 언급하려 한 것은 이 “사건에 연관되었던 사람들은 침묵하고 離散”해 버렸고 또 “당 전체로서도 문제의 본질과 정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사태를 무화시켜 버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면서도 나는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29]

그의 기억, 판단, 발화의 무게중심이 “하부당원”에 가있는 점은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하부”라는 주체 위치에 대한 민감함은 고바야시 마사루의 가치론적 시선이 온전히 말해지지 못한 채 가려진 역사와 그 역사의 현장을 채웠다 뿔뿔히 흩어져버린 자들을 향해 있음을 잘 말해준다. 위치의 문제는 “군사방침이 최초로

29) 小林勝, 「事實と責任の所在-火焔瓶事件の頃」, 『近代文學』 14-3, 1959, 46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 것은 1950년, 당 분열 후에 발표된 5전협 때였다. 이 때, 신강령이 발표되고 동시에 군사방침이 발표되었다. 발표는 되었지만 우리 하부당원에게는 충분한 실감을 갖고 수용될 수는 없었다.”는 서술 그리고 “군사조직의 상당한 상급” 지도부에 속한 학창시절 친구에 대한 서술에서 여실히 제시된다. 친구는 고바야시 마사루에게 “반은 동정하고 반은 질타하듯 '왜 저 데모에 참가하지 않나'”라는 말을 던진다. 친구는 “군중의 데모를 지도하고 상황 분석은 해도 참가는 하지 않는”, “상급기관”[30]에 자리한 인물이다. 그는 투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결행에 스스로를 던진 것은 조직 아래층의 행동 대원이었음을 강조한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상급기관은 군사문제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발휘하라고 할 뿐 실제의 위험한 행동, 전술이나 전략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 제2차 대전 때의 소련이나 프랑스의 파르티잔을 보라, 팔로군의 전술을 연구하라,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의 혁명적 행동 속에서, 그 연관 속에서 군사행동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게 둔다면 상급기관은 매우 교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적 행동과의 연관이란 건, 부대는 街頭적인 것이 되고 무기는 화염병만으로 되어 그것을 경찰이나 경관에게 던진다는 것 말고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대원의 사회적인 직업은 광범위했다. 학생이나 노동자(노동자라 해도 큰 산업체부터 마을 공장까지 천차만별이었다)의 연령은 대체로 17,8세부터 22,3세였다. 화염병은 던져졌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투옥되었지만 침묵하지 않고 자백했다는 예를 나는 거의 듣지 못했다. 당 상층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유감스럽게도 나는 모른다. 알고 있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상층부 사람들뿐일 듯하다.[31]

당 상층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기묘한 책임 ‘회피’는 행동하고 체포된 그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였다. 특히 뼈아픈 사실은 당 창립 30주년 기념일에 발표된 공식 문건에서 화염병 투쟁을 “전체 일본 국민의 투쟁에서 벗어난 一揆主義이자 극좌 모험주의로 일방적으로 단정”지어 버린 것이다. 그는 “실제 참가자 자신조차 문제의

30) 小林勝, 앞의 1959 글, 47면.
31) 小林勝, 앞의 1959 글, 47~48면.

본질을 풀기에는 입수 곤란한 당시의 비합법 문서와 협소한 체험만을 지닌 채 사실의 대부분은 여지껏 불명확한"[32] 상태로 방기되어 버렸음을 지적한다. 신념과 윤리의 실천이었던 투쟁은 그것을 기획한 대문자 주체에 의해 쉽게 버려지고 잊혀졌다. 어떤 것도 제대로 밝혀지거나 온전히 의미화되지 못한 채, 이 '짧은' 리얼리티와 '미미한' 주체는 소리소문 없이 지워지고 부정된 것이다. 이 글 마지막의 에피소드가 말해주듯이 1952년의 사건들은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같은 맥락의 통렬한 문제제기는 「獨居房ノート」에서도 거듭되고 있다.

> 나는 나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일본공산당에 대해 흔들림이 없다는 데 은근한 긍지를 갖는다. 화염병을 던질 무렵부터 보면 나는 약간 복잡해졌다. 지도층에 비판적으로 됐다. 하지만, 오늘의 일본공산당은 누가 지탱하고 있는가. 우리들이라는 생각으로 이 생활을 견디고 있다. 일본공산당에는 과거의 국제파든 주류파든 이미 더 이상 상처받을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가진 당원들이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당을 지탱하고 있다. 오늘날 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도층이 현명했기 때문이 아니다. 스파이라고 매도당해 당에서 내동댕이쳐져도 그래도 당을 지키는 자, 3천엔으로 한 달 생활을 이어가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령을 지켜나가는 자- 누가 이 남자들을 어리석다고 비웃는가.[33]

고바야시 마사루는 "지금 형무소에 있는 일본 공산당원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극좌모험주의를 실행한 남자들이다. 이것을 평생 잊을 수 없다"[34]는 확고한 심경을 덧붙인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투옥, 보석, 이송, 재판을 거듭한 자신을 포함하여 상처입고 잊혀진 존재를 "우리들"이라 부른다. 이들을 향한 책임 윤리가 이 시기 고바야시 마사루의 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이 인식론적 축은 "우리들"을 봉인과 망각의 장에서 불러내어 존재감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낳는다. 이렇게 하여 『斷層地帶』와 「가교」 모두, 묻혀버린 거리 투쟁의 주체를, 봉쇄된 기투의 시절을, 버려진 열기의 짧은 역사를 호출하고 복기하는 문학적 시도가 된 것이다.

---

32) 小林勝, 앞의 1959 글, 48면.
33) 小林勝, 「獨居房ノート」, 『小林勝全集』 3, 白川書院, 1975, 216~217면.
34) 小林勝, 앞의 1975 글, 218면.

그런데 「가교」는 이 윤리와 욕망을 『斷層地帶』와 공유하면서도 한 발 더 나아간다. 「가교」는 『斷層地帶』의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일본인 청년당원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더 아래의 혹은 더 주변의 군사행동대원에게로 향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어석거리는 짝패를 생각해 보자. “하나의 지령 아래 조직된,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열아홉 살의 소년과 조선인 청년”35)이 그들이다. 아사오는 非당원으로 군사행동대에 참여한 작은 공장의 공원이고, 조선인 청년은 반전운동에 참여했던 재일조선인을 환기시키는 인물이다. “인간적으로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일본인 청년은 조선인 청년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개인사를 얘기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다. 둘 사이에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미묘하게 흐르던 긴장과 적대감은 공동행동을 수행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나누면서 다소 누그러진다. 그러나 「가교」의 목적은 두 존재가 한국과 일본의 아픈 역사를 함께-나눠 갖거나 사적 체험을 통해 깊이 소통할 수 있다는 낙관적 가능성을 말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한국(조선)과 일본,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봉합될 수 없는 복잡성과 균열, 거리와 차이를 쉽게 지워버리려는 순박한 정념 혹은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한 신념에서 벗어날 것을 자극하고 있다.

반전 윤리를 상대화시켜 자기 전복적인 질문을 던지는 「가교」의 역량도 이런 맥락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가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현장을 호출한다는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이 “우리들”이라는 정체성의 장에 일본인 아닌 ‘이질적’ 존재를 전면적으로 등장시킨다. 그는 조선을 향한 열정과 윤리를 지닌 일본인-“우리들”과 함께 행동할 수는 있지만 일본인 반전 주체가 기대하거나 예단하는 대로 쉽게 교호가능하거나 교감가능한 자가 결코 아니다. 게다가 이들의 절박한 투쟁에 비하면 일본인의 투쟁과 내면은 사실, 마치 아사오가 툭 놓쳐 떨어뜨린 화염병처럼 결정적이지 못하다. 던져지지 못하고 터지지 못한, 일본인 청년의 불발한 화염병이 상징하듯, 조선인 반전 주체가 실존하는 시공간에서 일본인 반전 주체 열기의 간접성과 미온성은 가릴 수 없이 드러나고 만다. 이것은 같은 장에서 반전이 아니라 치열하게 ‘참전’ 중인 재일조선인의 입장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러나 현저히 다른 위치와 정념의 조선인 주체에 의해, 그림자처럼 그 대비는 나타나고 확인되는 것이다.

35) 고바야시 마사루, 이원희 역, 『쪽발이』, 「가교」, 소화, 2007, 72면.

> 우리 조선인들은 조선인으로서의 길을 찾아낼 거야. 일본인인 자네는 일본의 역사와 단절된 길을 찾아낼 수는 없겠지. 그게 민족의 역사라는 것이겠지. 오늘 밤 자네 행동의 계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일본인들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참가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따름이지. 나는 달라.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말이야, 내 조국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나 또한 어디에 있든 그 전쟁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까짓 화염병 따위는 아이들 장난감 같은 무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일본인이 같은 일본인의 화염병을 놀리거나 비판하거나 조소하더라도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족의 일원이니까. 빈약한 무기라도 그것밖에 없다면 그걸 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 점이 자네와 다른 거야.[36]

“그런 식으로 참가할 수도 있”는 일본인의 반전이라고, 조선인 청년은 거리를 두며 말한다. 그리고 열의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일본인에게 조선인들의 싸움은 다르다고 강조한다. 전쟁이 발발하자 재일조선인 사회는 참전과 투쟁을 위한 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한국지지 세력은 자원군을 모집하여 참전했고 북한지지 세력은 미국을 상대로 한 실력투쟁을 전개했다.[37] 특히 일본공산당과 연계한 재일조선인의 활동은 ‘조국방위’라는 민족적 요구에 응답한다는 고유의 투철한 목적과 노선을 가진 것이었다.[38] 『斷層地帶』가 下位의 일본인 반전 주체를 그리는 애정과 회한의 초상화라면, 「가교」에서 그들의 진정성과 수행성은 이질적인 존재의 이질적인 목소리를 통해 논평된다. 아사오는 처음부터 계속 허둥대고 실수한다. 조선인 청년은 임무 달성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냉철하고 치열하다. 서로 어긋나 절뚝거리는 두 청년은 역사적, 정치적, 대항적 주체로서의 자신의 역능을 각자 확인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지울 수 없는 차이를 함께 인식한다. 「가교」는 일본인 반전 주체의 위치와 불/가능성의 지평이 아프게 환기되는 서사이다. 동시에, “꼼짝 않고 서 있는 아사오의 눈에 청년의 넓은 어깨가 보”이고 그것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서사이기

36) 고바야시 마사루, 앞의 2007 글, 104면.
37) 남기정, 「한국전쟁와 재일한국/조선인 민족운동」, 『민족연구』 5, 한국민족연구원, 2000, 116면 참고.
38) 남기정, 앞의 2000 글, 123면 참고.

도 하다.

Ⅳ. 반전 운동의 역사와 고바야시 마사루

지금까지 『斷層地帶』와 「가교」를 통해 고바야시 마사루가 구축한 일본에서의 반전 윤리와 이 윤리 자체를 되묻는 메타 윤리의 심층을 고찰했다. 특히 『斷層地帶』와 「가교」의 세계가 연속선상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부정을 통해 인식론적 확장을 얻게 되는 계기를 분석하고자 했다. 『斷層地帶』라는 어쩌면 반전 윤리의 상상계라 명명할 수 있을 세계가 깨지면서, 「가교」의 破狀에 내재된 어떤 진실이 출현한다. 「가교」가 진지하게 들춰낸 진실은 일본인 반전 주체의 자기중심성과 근원적 허약함에 대한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또하나의 강한 진실이 도착한다. 반전운동의 중요한 세력이었던 조선인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일미 관계를 겨냥한 일본 내 혁명열과 투쟁열이 한국전쟁 또는 한국전쟁에 협력하는 일본이라는 문제적 지점을 향해 지펴진 것은, 일본 내부 좌익 운동이라는 크고 긴 흐름 가운데 외향화된 작은 지류가 한반도로 접속해 들어온,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대에 해당하는 '순간'의 사건이다.

당시 재일조선인 세력과의 연계-연대 고리가 강하게 채워졌지만, 1952년의 추이와 1955년의 정황이 알려주듯 이 고리는 지속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지속가능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일본 공산당이 한국전쟁 무렵 소련 공산당 압력에 의해 폭력혁명 무장투쟁 노선을 설정했을 때 실제 일본의 국내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공산당원들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전쟁 국면에서 그나마 몸을 던져 싸운 사람은" "한반도 조선에서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열심히 투쟁"한 "조선인 공산주의자밖에는 없었"[39]다는 비판의 시선을 비켜가기 어려운 것이다. 「가교」는 재일조선인과의 합동작전 장면을 통해 이 갈등적 공동행동 순간의 역학을 조망했다. 여기서 일본인이 재일조선인과 맺는 관계는 "매우 큰 저항과 맺는

---

39) 「일본 공산당의 폐쇄성이 좌파운동 분열의 원인」, 『프레시안』, 2011.12.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4281#09T0. 조희연, 이영채, 무토 이치요우의 인터뷰기사이다.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다름’의 어떤 것과 맺는 관계”라는 점 역시 확인시켜 준다. 이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와의 병치를 통해 1952년의 반전 행위, 일본인 반전 주체의 체감온도와 미발은 누설되고, 이로써 반전윤리의 자기-신뢰와 자족성을 부정하는 윤리가 출현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斷層地帶』도 「가교」도 모두 여러 의미에서 만가라 할 수 있다. 두 텍스트는 ‘순정’했던 투쟁과 반전 열기를 기리는 만가이자, 열기가 살아 있던 시대를 아끼는 만가이다. 더불어, 열기의 작은-주인들이었으나 쓰디 쓴 고초를 겪고 잊혀진 자들에게 바치는 만가이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두 개의 만가를 통해 소모되고 소진되고 소멸된 것들을 애도하는 동시에, 한때 반전 윤리를 나눴던 한 떼의 움직임을 응시하면서 그 반전 윤리의 涯限을 직시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아님을 말하게 되므로, 그는 갈라진 혀로 발화하고 있는 셈이다. 아마도 이렇게 이중발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당시 그처럼 ‘진정으로’ 반전한 자가 치러야 했던 갖은 고투 가운데 가장 아프고도 심대한 고투가 아니었을까.

고바야시 마사루의 이 생산적인 이중 발화를 통해 우리는 냉전기 동아시아에서 ‘반전’이라는 가치를 전유해 온 또는 전유할 수 있었던 일본 및 일본의 대항 이념 · 주체의 ‘절대성’ 자체를 질문의 장으로 가져오게 된다. 이 때 중요하게 되돌이켜 볼 지점이 역학적으로는 재일조선인이라는 반전 주체이며,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반전운동 이후에 있었던 베트남전쟁 반대운동일 것이다. 재일조선인과 조선전쟁이라는 항은 이 글의 주된 고찰 대상으로 논의했으므로 베트남전 반대운동에 관해서만 짧게 생각해 본다. 일본에서 베트남전 반대운동은 한국전쟁 반대운동과 이념적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사회정치적으로 변화한 국면 속에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1965년에 출현한 베헤렌이 말해주듯 이 시기 반전운동은 비폭력의 원리와 시민의 호응을 기반으로 한 폭넓은 대중운동으로서의 면모가 강했다. 일본 반전 역사의 두 번째 물결에 해당하는 1960년대 중반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동시대 복수의 이념-운동 주체들이 정체를 겪고 있는 와중에 형성된 것이다. 즉 기성좌익은 한국전쟁과 원수폭 금지운동에서 분열을 겪으면서 평화운동에서 권위를 상실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계급과 민족’에 입각한 진영 평화주의는 행동력은 갖추었으나 도덕적 권위는 상실한 상태였으며, ‘절대 평화주의’에 입각한 ‘강단 평화주의’는 행동력이 이론적 정밀성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40] 베헤렌은 “시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 틈새에서 국민들의 반전 심성을 조직화해냈던 그룹”[41]이었다.

고바야시 마사루는 베트남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할 만한 직접적인 참여나 발언을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65년을 전후하여 병마와 싸우면서 1970년『쪽발이』를 출간하고 이듬해 초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가 ‘조선’이라는 절박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천착하고 있었음은 이 시간대에 남긴 흔적들이 증명한다. “그대들은 어디로 갔는가? 오늘 고스게의 좁은 창을 통해 보는 초가을 하늘은 흐려서 어두침침하다. 담장, 플라타너스, 확성기, 운동장의 음울한 염영 속에 그대들의 얼굴이 나타난다. 그대들, 용감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가진 조선의 동지들. 담장 밖에서도 안에서도 그대들에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던 우리 일본 공산주의자들. 지금 그런 나에게 자네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들려온다. 마지막까지 싸우자 동무, 라고”[42]라는 문장은 1952년 데모 후 체포되어 도쿄 구치소 독방에서 지낼 때 수첩에 남겼던 것이다. 그는 이 글을『쪽발이』의 후기「나의 조선」에 그대로 인용해 놓음으로써 1952년의 상황과 경험을 당대화했다. 하지만 고바야시 마사루의 반전과 반전의 시절은, 베트남전쟁 반대운동기까지 내려와 후대의 시점에서 되돌아 보면 전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후 대항 세력마저도 떨어뜨리고 지나친 돌맹이처럼, 뜨겁고 강하지만 어딘가 고독해 보인다. 고바야시 마사루에게서 읽히는 ‘고독’의 윤리성과 정치성을 성찰하는 일은, 반전운동사에서 지극히 짧은 순간으로 스쳐간 1952년과 이 순간을 파생시킨 길게 얽힌 한일관계 그리고 그 역사를 살아내고 기꺼이 감당하려 한 작은-개인들의 분투를 되짚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9.07.18	심사일: 2019.08.23	게재확정일: 2019.09.03

40) 남기정,「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통일과 평화』6-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74면.

41) 남기정, 앞의 2014 글, 74면.

42) 고바야시 마사루, 이원희 역,『쪽발이』,「나의 조선」, 소화, 2007, 309면.

참고문헌

小林勝,「事實と責任の所在-火焔瓶事件の頃」,『近代文學』14-3, 1959

______,「獨居房ノート」,『小林勝全集』3, 白川書院, 1975

______,『斷層地帶』,『小林勝作品集』2, 白川書院, 1975

『小林勝作品集』5, 白川書院, 1976

고바야시 마사루, 이원희 역,『쪽발이』, 소화, 2007

고야마 히로타케, 최종길 역,『전후 일본의 공산당사』, 어문학사, 2012

에마뉘엘 레비나스, 김도형 외 역,『전체성과 무한』, 그린비, 2019

西村秀樹,『大阪で闘った朝鮮戰爭: 吹田枚方事件の青春群像』, 岩波書店, 2004

강영안,「전쟁과 평화-레비나스의 정치철학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의 평화」,『일본사상』18,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0

김지훈,「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사림』64, 수선사학회, 2018

김학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20세기의 내전」,『아세아연구』142,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남기정,「한국전쟁와 재일한국/조선인 민족운동」,『민족연구』5, 한국민족연구원, 2000

______,「동아시아 냉전체제하 냉전국가의 탄생과 변형」,『세계정치』26,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05

______,「일본의 베트남전쟁」,『사회와역사』105, 한국사회사학회, 2015

______,「베트남전쟁의 현실과 일본의 평화담론」,『통일과 평화』6-2,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4

마상윤,「글로벌 냉전과 동북아시아」,『세계정치』22,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2015

문성원,「윤리와 종말론」,『시대와 철학』24-4,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3

______,「정치와 윤리」,『시대와 철학』26-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박예은,「레비나스의 타자윤리와 제3자의 정치철학」,『인문논총』73-1,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6

신승모,「식민자 2세의 문학과 "조선"」,『일본학』37,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2013

오태영,「식민(지)의 기억과 전후 연대의 상상력-고바야시 마사루의『쪽발이』를 중심으로」,『인문과학』114,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18

장세진,「트랜스내셔널리즘, (불)가능 그리고 재일조선인이라는 예외상태」,『동방학지』157,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2

최범순,「전후 일본의 기억과 망각」,『일본어문학』78, 한국일본어문학회, 2018

하라 유스케,「고바야시 마사루(小林勝)와 崔圭夏」,『사이』 12,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2
大沼久夫,「朝鮮戰争への日本の協力」, 大沼久夫 編,『朝鮮戰争と日本』, 新幹社, 2006
井上幸子, 「1952年と戰後日本の斷層-小林勝の『斷層地帶』に見える戰後認識」, 『일본근대학연구』 55,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_______,「小林勝の『斷層地帶』のテキストの變化」,『일본어문학』 82, 일본어문학회, 2018

The Struggle of an Antiwar Activist
— Kobayashi Masaru and the Korean War

Kim, Ye-rim

This paper explores the dynamics and meaning of the anti-Korean War movement in the early 1950s in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Kobayashi Masaru's ethics suggested in his two works『斷層地帶』(Fault Plane) and「Gagyo」(The Bridge). He is known as remarkable novelist criticized Japan's collaboration for the Korean War through submitting Choseon as 'present' problem which can not and should not be avoided by post-war Japan. He participated in anti-Korean War demonstration called "Molotov Cockail event" as a member of action group of Japan Communist Party and wrote two stories transcribing the experiences of the time. His ethical directivity headed for those who engaged in attack munitions factories and actual fight in the street, who became targets of criticism and oblivion following the change of doctrine and tactical strategies of the party. His two works are attempts not only to remember the forgotten activists but also to face up their own responsibility for Choseon and its undeniable limit. There's epistemic distance between『斷層地帶』and「Gagyo」in that the former is the narrative of authenticity of Japanese anti-war subject, while the latter goes beyond ego-centered authenticity. If『斷層地帶』shows ethics of anti-war itself,「Gagyo」constructs meta-ethics, in other words, the ethics of gazing at anti-war ethics by self-objectification.

Key Words : Kobayashi Masaru, The Korean War, antiwar movement, Molotov Cockail event, ethics of anti-war, the ethics of gazing at anti-war ethics